

연예종합

김경진 “정다래 공항마중 박명수가 말렸다”

금의환향 날 사고날라 선배가 제지 연락처 몰라 만날방법 없어 아쉬움 수영연맹 문의에 장난전화로 오해 “만나면 명동서수제돈가스 사줄것”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공항으로 마중 나가고 싶었죠. 그런데 소속사 대표인 박명수 선배가 말려서...”
 요즘 개그맨 김경진과 2010 광주 아시안게임의 수영 스타 정다래 선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연금 검색어로 뜰 정도로 화제다. 과연 두 사람이 만날지, 만난다면 언제 만날지를 두고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언론용 ‘팁서비스(?)’가 아니냐며 둘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대해 개그맨 김경진은 처음으로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결론은 약속을 꼭 지키고 싶고,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는 것.

김경진은 1일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정 선수가 입국한 지 4일이 지났지만 아직 연락할 방법이 없어 만나질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인데 연락처를 모른다. 정다래 선수가 소속된 전남수영연맹에 전화를 하면 알려줄 수도 있다고 해 전화를 했는데, 내가 김경진이라고 하니 그 쪽에서 장난전화인 줄 알고 그냥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김경진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선수단이 입국한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찾아가 정 선수를 만나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이자 개그맨 선배인 박명수의 만류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는 “남자답게 공항으로 찾아가 만나



김경진 정다래

고 직접 싶었지만 박명수 선배가 말렸다. 선수들이 금의환향하는 좋은 날 나 때문에 괜히 사고라도 날까 걱정하신 듯 하다.

정다래 선수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와의 만남을 들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해 조용히 들만 만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진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 선수와 나는 전화 통화에서 명동에서 왕돈까스를 사주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됐다.

그는 “내가 오빠고, 정다래 선수 덕에 많은 인기를 얻었으니 왕돈까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수제 돈까스를 사주고 싶다”며 웃었다.

또 정 선수가 자신의 팬임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 “나는 B급 영화를 좋아하고, 비주류의 개그맨이다. 그런 점에서 4차원적인 정다래 선수와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다. 주변에서 정다래 선수에게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 시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다래 선수의 노력과 그 결과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2월 2일)

화마가 삼킨 72년 ‘10대가수 청백전’ 53명 사망·문주란은 복합골절 입원

“2층 객석이 무너져 철근만이 앙상하게 걸려 있고 복도와 출구에는 서로 뛰어나가려다 놓친 신발과 핸드백, 오바 등 주로 여자들의 물건들이 수북히 쌓였다. 비상구와 계단 복도 등에는 연예인과 악단의 가방에서 떨어진 악보도 흩어져 있었으며 화환과 꽃다발이 복도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9시40분경 불길이 치솟는 8층 유리창 안에서 한 명이 나타나 ‘살려달라’고 필사의 구원을 요청, 소방사다리차가 접근했으나 불길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어 구조하지 못하자 10시경 유리창에 어른거려던 이 남자의 모습이 사라졌다.”



1972년 12월2일 ‘10대가수 청백전’이 열리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민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53명이 사망하고 가수 문주란과 김상희가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스포츠동아DB

1972년 12월3일자 동아일보 호외에 실린 기사 중 일부다. 1972년 오늘, 밤 8시27분, 서울 도심 한복판, 종로구 세종로 81번지 서울시민회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서울 충무로 대연각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모두 16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탄절의 비극이 채 잊혀지지 않은 1년 뒤였다.

토요일이었던 이날, 국내 최대 공연장이었던 이곳에서는 MBC ‘10대가수 청백전’이 열렸다. 화마는 무대에 막이 내리던 7분 뒤 덮쳐왔다. 무대 뒤 조명장치의 과열 및 합선으로 인한 불이었다. 4000여명의 관객이 막 공연장에서 빠져나오던 순간이었다. 1500명 가량의 관객이 여전히 내부에 있었고 불은 순식간에 무서운 속도로 번져갔다.

소강당을 빼고 9900여㎡(3000여평)을 모두 삼켜버린 화재는 1000여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군 병력이 동원된 작업 끝에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날용 서울시민회관 관장을 비롯한 53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다. 불을 피우려던 사람들이 계단에 걸려 잇따라 넘어지고 쓰러지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또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 내린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 부상자 가운데 당시 인기 가수 문주란과 김상희가 있었다. 이들은 이날 생중계된 무대에서 베트남 파병 부대 위문공연을 떠난 나훈아를 빼고 김상진, 남진, 이상렬, 이용복, 정훈희, 조미미, 하춘화 등 ‘10대가수’들과 함께 공연을 펼쳤다. 신인상 수상자 김세환과 정미조, 특별상을 받은 김추자, 코미디언 구부서와 광규석도 참여했다. 영하 2도의 추운 날씨를 녹여내는 화려한 무대 공연이 끝난 직후 이들이 떠나려던 찰나 불길이 달려들었다. 김상희와 문주란, 하춘화는 대기실에서 뛰어나왔지만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나아가 기란 쉽지 않았다.

문주란은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리다 제2요추 복합골절의 중상을 당했다. 문주란의 손을 잡고 빠져나오려던 김상희는 다행히 왼손과 왼발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하춘화 만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무사했다. 이후 문주란은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대형 참사가 떠났고 간 정신적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문주란과 김상희는 참사의 비극 속에서 살아남아 대중과 오래도록 호흡하는 가수로서 감성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1박2일 ‘제6멤버’ 누구

윤계상 양동근 불발...누리꾼 이정 추천 KBS 고위층까지 나서 10여명 물밑접촉



제6의 멤버는 과연 누가 될까.

KBS 2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의 코너 ‘1박2일’의 새로운 멤버 영입이 연일 화제다. 여러 명의 스타 이름이 차례로 거론되며 출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그에 따른 찬·반 양론까지 등장하는 등 캐스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일 가수 출신 연기자 윤계상이 ‘1박2일’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은 사실이 공개돼 온라인을 달궜다. 출연을 결정한 게 아니라 “출연 제의를 받고 고민 중”이라는 내용이었지만 곧바로 누리꾼들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윤계상과 제작진은 서둘러 “출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과열된 분위기를 진화했다.

지금까지 ‘1박2일’의 새로운 멤버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스타들은 윤계상을 비롯해 연기자 양동근과 가수 이정. 제작진은 양동근에게 출연을 제의했고 이 사실이 몇몇 온라인 연예계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제작진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캐스팅 과정에서 이름이 공개되면 김이 셀 수 밖에 없다”며 양동근과의 출연 논의를 중단했다.

가수 이정은 시청자들이 먼저 추천한 인물. 해병대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정이 보여주고 있는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1박2일’ 성격과 맞아 떨어진다며 시청자와 누리꾼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름이 공개된 세 명을 포함해 제작진은 10여 명의 스타들과 물밑 접촉을 벌이며 적합한 인물을 고르고 있다. 복수의 후보를 놓고 담당 연출자는 물론 KBS 예능국과 KBS 고위 관계자들까지 캐스팅에 의견을 나누고 있을 정도로 공을 들이는 상태다.

‘1박2일’의 새로운 출연자 결정이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하차한 가수 MC몽의 빈자리를 메운다는 사실 외에도 강호동, 이수근 등 캐리커가 강한 다른 출연자들과의 조화가 프로그램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박2일’ 제작관계자는 “이렇게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멤버를 결정하는 일은 더 쉽지 않고 부담스럽다”며 “내년 초 투입을 목표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출연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이병헌-김태희 ‘아테나’ 깜짝출연?

제작진 제안에 이병헌 ‘검토중’

‘이병헌(사진)과 김태희, 정우성과 수에가 한 드라마에?’

드라마 ‘아이리스’의 두 주인공 이병헌과 김태희가 스펀오프작인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도 등장할까.

13일부터 방송하는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하 아테나-극본 김현준·연출 김명준)은 ‘아이리스’에 등장한 국가비밀정보국 NSS 산하의 특수기관 NTS가 주요 무대다.

같은 배경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펼쳐지는 ‘스핀오프’편의 특성상 ‘아이리스’에 이어 ‘아테나’에도 이 정일이 대령을 다시 맡았고, ‘아이리스’에서 북한의 최고 첩보원 역을 맡았던 김승우와 김소연도 특별출연 한다. 자연 관심은 ‘아이리스’의 NSS의 요원이었던 이병헌과 김태희가 ‘아테나’에 출연하는 나이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대표는 “‘아이리스’에 출연했던 정한웅, 박용기 등 여러 배우들이 ‘아테나’에서도 나온다”며 “이병헌과 김태희가 잠깐이라도 출연하도록 현재 두 사람과 접촉



중인데 드라마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테나’와 별도로 2011년 방송을 목표로 제작되는 ‘아이리스2’에서도 두 사람의 출연여부는 관심거리다. “정 대표는 “기획을 마무리한 단계”라며 “이 드라마에서도 어떻게 출연할지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캐스팅 제의는 받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리스2’는 1편에서 의문의 총을 맞은 이병헌이 김태희나 김소연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길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김현우 기자 pudgalia@donga.com

알립니다=12월2일 목요일자 허영만의 ‘자전거 식객’은 지면사정으로 인해 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시부야 거리’를 정령한 ‘소녀시대’가 일본 도쿄 시부야의 대표 백화점 ‘시부야 109’의 외벽에 초대형 일루미네이션(전광장식)으로 등장해 일본 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소녀시대, 도쿄의 밤을 흔든다

시부야 외벽 초대형 일루미네이션 라인댄스로 행인들 눈길 사로잡아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각성미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은 일본 도쿄 변화의 밤 거리를 수놓았다.

소녀시대는 11월30일 밤 도쿄 시부야의 대표적인 백화점 ‘시부야109’의 외벽에 초대형 일루미네이션(전광장식)으로 등장했다. 이날 밤 처음 불이 켜진 소녀시대 일루미네이션은 일부 전기회로의 문제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생겼지만, 이내 수만 개의 전구에 정상적으로 불이 켜지면서 시부야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일루미네이션에서 소녀시대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추는 춤인 일명 ‘라인댄스’ 동작으로 도쿄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소녀시대의 이미지는 25일까지 이 빌딩의 외벽을 장식하게 된다.

소녀시대는 노래와 춤, 패션 등 모든 면에서 주목받으며 일본의 10~20대 여성층의 달고 싶은(워너비) 스타로 부상해 시부야의 대표적인 패션 빌딩에 등장하게 됐다.

한편 소녀시대는 2일 한중가요제에 참석한 뒤 4일 일본 연말 가요제 중 하나인 후지TV ‘FNS 가요제’에 유일한 한국 가수로 참석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정연준 “브라우니와 비밀결혼?…NO!”

업타운의 원년 멤버 정연준(사진 오른쪽)이 1일 오전 피진 브라우니(왼쪽)와의 결혼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연준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교제중인 것은 맞지만 극비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를 했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는 말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설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최근 교제 1000일 기념으로 교회의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파티를 한 것이 와전되

어 결혼설로 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며 “결혼을 한다고 해도 하객들 모시고 정식 결혼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업타운의 원년멤버 겸 프로듀서와 가수로 만나 16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 2년간 사랑을 쌓아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순위	제목	작가(출간일)	출판사
1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정연준 (김희정) (김희정)	부키
2	브리다	파울로 코엘료 (권미선)	문학동네
3	생각 버리기 연습	코이케 료노스케 (유윤환)	21세기북스
4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델 (이창신)	김영사
5	카산드라의 겨울, 1	베르나르 베르베르 (임호경)	열린책들
6	서른과 마흔 사이	오구라 히로시 (박해원)	토네이도
7	달콤한 작은 거짓말	에쿠니 가오리 (신유희)	소담출판사
8	카산드라의 겨울, 2	베르나르 베르베르 (임호경)	열린책들
9	허수아비춤	조청래	문학과학
10	보이지 않는 차이	연준혁	위즈덤하우스

집계기간 : 11월 4주, 자료 : 교보문고